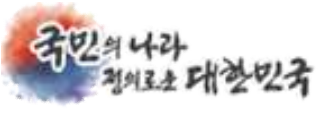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보 도 자 료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담당자	• 배포 : 2018. 12. 11. (화) • 기획조정실 김 정 완 실장 • ☎ 031-389-6431 • initialx@kaia.re.kr		
보도일시	•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진흥원, 인간 존엄과 가치 구현을 위한 인권경영 선포 - 11일(화), 「KAIA 인권경영 현장 선포식」 개최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 이하 국토진흥원)은 12월 11일(화) 안양시 동안구 국토진흥원 회의실에서 임직원, 노동조합, 협력사 및 지역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KAIA 인권경영 현장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국토진흥원은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인권경영 현장(이하 현장)”을 제정하고 이의 준수를 다짐했다.
- 현장에는 △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준수 △ 고용상의 차별 금지 △ 노동3권의 보장 △ 강제·아동노동 금지 △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직원의 신체적·감정적 존엄성 보장 △ 직·간접적 고용·협약·계약 관계 및 지역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경영 확산 △ 개인정보 보호 △ 사회적 약자 비차별 및 지역주민 인권 보호 △ 환경보호 △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등 10개 조항을 통해 인권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실천 의지를 담았다.

- 국토진흥원은 2010년 반부패·청렴 추진 선포, 2013년 임직원 행동 강령 제정, 2018년 청렴 마일리지 도입 및 윤리경영 선포 등 윤리경영 정착과 인권침해요소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 이날 국토진흥원 손봉수 원장은 “인권 및 노동권 존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차별 등이 인권경영의 핵심”이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원은 물론 우리와 동행해 나가는 협력사, 지역사회의 인권의식 정착에 기여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권경영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www.kaia.re.kr)

국토교통부 산하 유일한 국가 R&D사업 전문기관으로서 5,058억원('18년 기준)의 R&D 예산을 집행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건설기술연구사업, 플랜트연구사업, 도시건축연구사업, 교통물류연구사업, 철도기술연구사업, 항공안전기술연구사업 등과 건설·교통 신기술 인증사업이 있다.

[별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인권경영 헌장.

우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에 기여하고 공공의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관의 모든 경영활동에서 임직원이 지켜야할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한다.

1.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주요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2. 우리는 임직원의 고용에 있어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한다.
3. 우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존중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준수하고, 노사간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4.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5. 우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업무상 질환·재해를 예방함으로써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며, 직원의 감정적·정서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6.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 유·무형의 서비스를 주고받는 협약·계약 관계 등 모든 협력파트너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관련한 어떠한 인권침해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7. 우리는 고객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8. 우리는 경영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차별과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9.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10.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한다.

2018.12.1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임직원 일동